

잔금일 전 전셋값 오른 만큼만...더 깎간해진 전세대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27일부터 새 관리방안 실행을 신규대출 61% 수도권 집중...실수요 비중 62%인 광주·전남 4%대 불과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대다수이지만 대출 자금의 수도권 편중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올해 1월

부터 8월 말까지 신규 가계대출은 9조551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출금액은 전체의 61% (5조8228억원)를 차지했다.

서울 가계대출은 전체의 34.8%에 달하는 3조3259억원이었고, 경기는 20.5% (1조9546억원)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에서의 광주 가계대출은 1725억원으로, 1.8% 비중이 그쳤다. 전남 대출액은 2.3%에 해당하는 2232억원이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말 가계대출 증가율이 7%

대를 넘으면서 올 8월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지역은 부동산 투자보다 실수요 성격의 대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 육취기로 인한 체계적인 피해가 더 크다.

농협은행의 수도권 지역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성격의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액은 1조7766억원으로, 30.5% 비중이 그쳤다.

반면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 (1조9518억원)과 중도금 집단대출 등 기타대출 (2조944억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69.5%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은 이의 반대 양상을 띤다.

광주·전남 가계대출 3957억원 가운데 실수요자 대출 금액은 광주 1055억원·전남 1403억원 등

2458억원으로, 62.1% 비중을 나타냈다.

광주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0% (570억원), 28.1% (485억원)이었다. 전남은 신용대출 비중이 49.8% (112억원)에 달했고, 전세대출 비중은 13.0% (291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수요 대출의 지역 양극화는 정책 자금 분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건수 총 7만8896건 (4조2549억원) 가운데 지역 비중은 광주 2.4% (1886건·784억원), 전남 2.2% (1703건·825억원)에 불과했다.

서울 1만8994건 (1조1058억원)과 경기 2만

5645건 (1조5147억원), 인천 3528건 (1919억원) 등 수도권에만 4만8164건 (2조8124억원)이 공급돼 전체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실행한다.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 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꼭 은행 창구에 서만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8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법합동청사에서 실시된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국세청·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국정감사

“경제기반 열악한 호남지역 소상공인·중기 적극적 지원 나서야”

광양세무서 신설 의견도

18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감사1반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호남지역 부가세 신고

인원 66만명 중 간이과세자는 17만여명으로 26% 상단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다는 뜻”이라며 “인구는 줄고 자영업자는 증가해 폐업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한도 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고금리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은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광주지역에서 평균 2.99%, 목포 2.93% 등 고금리

를 받고 있다”며 “시중은행은 호황을 누리는 와중에도 경제기반이 열악한 호남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납 환급건수가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증가했고 과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경신했다”며 “세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다. 단순 납세자 착오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경일자리 성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노후환원 서광주세무서 신설, 광양세무서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기용 기자 pbxer@

광주·전남 기업 46% 산단 외 개별입지

경관·교통문제 등 유발 우려

광주·전남 기업체의 46% 가량은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 광주·전남 지역 공장등록 기업 1만4397개 가운데 개별입지 기업은 45.9%에 달하는 6608개로 집계됐다.

광주 기업 5883개 중 31.5%에 해당하는 1856개 가 산단이 아닌 곳에 입지했고, 전남은 8514개 중 55.8%인 4752개가 개별 입지했다.

전국 개별입지 기업 비중은 54.8% (26만개 중

14만개)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공장등록 기업의 절반 이상이 개별입지하면서 생기는 난개발 문제를 지적했다.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산단)에 비해 입지비용이 낮은 편이며, 개별입지 증가는 경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

개별입지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양산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기존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중산업단지화를 추진하고 개별입지 기업이 미분양된 산단으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화학공학회 27~29일 광주서 가을 총회

올해 창립 59주년을 맞은 한국화학공학회가 오는 27~29일 광주에서 가을 총회를 연다.

한국화학공학회는 올해 1월 김형순(추혜양에너지 대표)을 5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사흘 동안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총회 주제는 ‘뉴노멀(새 표준) 시대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이다.

가을 총회와 함께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는 10개의 주제별 토론회(심포지엄)와 4개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화학공학 대학생 편연페스티벌’과 ‘산업체 홍보전시회’를 열며 채용 연계도 진행한다.

김형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기술의 발전, 첨단소재·공정의 개발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화학공학의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며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화학공학회가 뉴노멀 시대의 기술 혁신과 사회적 역할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06.68 (-8.38)
↑ 코스닥	993.86 (+3.32)
↑ 금리 (국고채 3년)	1.875 (+0.080)
↑ 환율 (USD)	1187.60 (+5.20)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담차 납품/배송) 1톤 냉동담차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